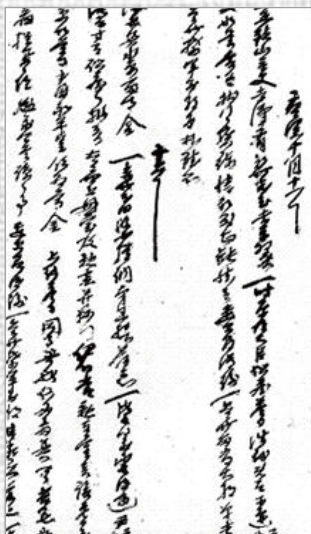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 (1)



〈원본 조보〉

1. 들어가며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으며,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언론을 정부보다 더 존중했던 그에게 후세의 사람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로 여겼던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의 하나이다.

그런데 군주제 국가였던 조선시대에도 언론활동을 벌였던 신문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1883년에 발행하였던 「한성순보」를 떠올린다. 그러나 「한성순보」 이전에 신문의 틀을 갖춘 ‘조보’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조보는 조정의 소식 혹은 조정에서 내는 신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관보의 일종이다. “역사란 각 시대가 다음 시대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을 그 때마다 기록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조선에서 발행된 ‘조보’ 역시 중요한 역사 기록이었다. 무엇보다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날마다 기록해서 배포한 문서였다는 점에서, 조보는 문자로 필사되어 배포된 최초의 공식 언론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조선 언론의 종아 ‘조보’

신문(新聞)의 한자 성어는 말 그대로 새롭게 듣는 것, 즉 신문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사실을 듣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일의 시사와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기록성(記錄性)을 지니고 있어 반복해서 볼 수 있다. 내용이 시사적일 뿐만 아니라 시의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정기성도 있다. 조보

의 주 독자층이 양반으로서, 민간인까지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문의 특성과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보는 기별·기별지(寄別紙)·조지(朝紙)·저보(邸報)·난보(爛報)·한경보(漢京報) 등 다양하게 불렸다. 조정의 소식 또는 조정에서 내는 신문이란 뜻으로 오늘날의 관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별’ 또는 ‘기별지’로 통했는데, 소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기별이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입으로 혹은 글로 전달하였던 것, 즉 정보(Information)라는 의미로, 조보의 우리말 별칭인 것이다.

대체로 조정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지만, 임금의 동정 및 인사 내용 등 중요 사항이 모두 수록되었다. 요즘 신문의 종류가 대단히 많지만, 중앙 일간지든 지방 일간지든, 스포츠 신문이든 경제 전문지든 기본적으로 주요 정치 기사나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조보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관청과 개인의 별도 소장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각 도서관에 상당한 분량의 고문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이나, 개인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소장처나 소장자의 의지에 따라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 정치의 메카는 군주가 있는 자리였던 점에서 정치 현장의 생생한 사실을 수록한 조보는 그만큼 의미가 크고 상징적이다. 정국을 주도하는 지배층이나 재야 학자들까지도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조보였던 것이다. 그만큼 조보의 효용성은 매우 컸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하향식 기능만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는, 정보의 수평적 전달과 일반 백성의 의견이 위로 전달되는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다.

3. 언제부터 발행되었을까?

조선은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해 왔고 그들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이미 티파오(Tipao:邸報)라는 필사 관보가 발행되어 통치 집단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다. 송나라와 명나라에서도 차오파오(Chao pao:朝報), 티파오 등이 발행되었다. 청나라 역시 칭파오(Ching Pao)라고 하는 공식 뉴스를 인쇄하여 배포하는 사설신문사가 있었다.

음으로 양으로 중국과 교류했던 조선이 당나라 이래 중국에서 발행 하였던 조보를 보지 못했을 리 없다. 더군다나 그것이 통치 체제의 강화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조보’라는 매체의 수용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찍부터 조보가 발행되었을 것이라는 첫 번째 단서이다.

조보의 기원을 가늠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단서는 공식적인 국가 수송 체계를 통해서이다. 조선은 국가 명령 전달 체계인 역(驛) 제도를 운영했다. 역은 국가 명령의 전달, 관물의 수송, 사신 왕래에 따른 접대, 그리고 지방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규찰 등을 담당한 명령 전달 체제였다. 역의 주요 임무인 공문서의 전달은 곧 군주의 동정과 조정의 행정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 및 사신 왕래에 따른 접대 등도 담당했다. 조보 역시 이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보 발행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최초의 조보 관련 언급은 1418년(태조 18)의 분발(分發, 조보의 이칭)이라는 기사이다. 1508년(중종 3)에는 성희안(1461~1513)이 조보를 보았다는 기사가 있다. 1520년(중종 15)에는 의정부의 사록을 승정원에 출입시켜 조보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승정원에서 처결한 사항을 곧 바로 알 수 없어 국정을 파악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군주의 물음에 답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때 남곤(1471~1527)이 조보의 선례로 제시한 것은 고려의 제도였다. 고려에서 급사증이 중추원에 출입시키면서 왕명 출납 등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운용하자고 한 것이다. 즉 ‘옛날에는, ‘조보의 내용’, ‘정령의 출납’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조선시대는 물론 고려시대에도 조보가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조보의 제작 과정

조선의 신문사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던 승정원이었다. 정종 2년에 독립기구가 된 승정원은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곳이다. 기자는 승정원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주서(정7품, 오늘날의 6급 상당 주사)였는데, 그 기능은 오늘 현재 청와대 비서실의 공보수석과 유사하다.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기자의 취사선택은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나 이익단체를 비판할 경우, 신문에 압력이 오는 경우와 동일하다. 기자의 취재 내용과 편집부의 편집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상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에 기사 삭제나, 정간, 폐간 등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주권을 빼앗긴 나라가 겪어야 했던 한계였다. 1980년 5월의 신문을 찾아보면,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통제의 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때는 권력이 무서워 할 말을 못했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있지만, 기자의 사명감과는 무관한 시대의 아픔이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비비며 받아보는 신문은 그저 종이 목치가 아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담긴 결정체이며, 배달하는 사람들의 땀이 담겨있다. 따라서 기사 그 자체에서 작성자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조보의 기사 역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조보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행되었다. 먼저 승정원에서 국가 통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취사선택하여 필사하는 곳으로 내려 보낸다. 주서는 발표된 내용을 받아 필사하여 발표하였다. 발표된 소식은 각 관청이나 대신들이 보낸 서리(기별서리)들이 조보소로 와서 필사해 갔다. 서리들의 필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그날의 신문 발행은 끝나는 것이다. 승정원이 기사의 내용을 선별해서 결정하는 신문사 편집국의 역할을 했다면, 조보의 실제적인 제작은 조보소(기별청)에서 했다. 즉 발행한 곳과 인쇄한 곳이 달랐던 것이다.

기별서리에 의해 필사된 조보는 기별군사(奇別軍士)에 의해 배포되었다. 기별군사는 기별사령 또는 조보군사라고 불렀는데, 당상관과 각 관청에는 전속 기별군사 혹은 기별사령이 있었다. 기별군사는 오늘날 보급소에서 신문을 직접 수령하여 배달하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였다고 보면 된다(다음 호에 계속).

